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3.(수) 14:00 < 5.4.(목) 조간 > 배포 2023. 5. 3.(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220개 수출업체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서비스 받는다

- 국가기술표준원-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협약 체결로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강화
-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무역기술장벽 애로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약 220여 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해외인증 획득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해 5월 3일(수)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과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등 적합성평가체제를 말함

이번 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3천여 개의 기업(220여 개 수출기업)이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인증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제공,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특히, 지난 4월 4일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수출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지원기관,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이 수출 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TBT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국가와 품목에 맞춘 해외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가 매칭 상담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까지 현장밀착형 정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발점으로 수출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협력을 확대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의 수출역량 향상과 신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담당자	주무관	남궁연 (043-870-552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화영 (032-453-7022)
		담당자	주무관	유연성 (032-453-71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